

2024 하계 해외문화체험(베트남) 결과 보고서

정치외교학과 조은준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1일차]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 하노이 대학 방문 & 전동차를 타고 호안끼엠 호수 주변 관광

우선 첫 번째 날 여행, 첫 번째 코스로 하노이 대학교를 방문했다. 정말 냉정하게 처음든 생각은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날씨가 아직 적응되지 않았고, 특유의 습기가 몸을 덮으며 베트남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우는 베트남 학생들을 보며, 나 역시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정돈된 인프라에서 공부하는만큼 마음을 다잡게 되었던 장소였다.

두번째 코스로는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정말정말 잘 찍은 사진이 나오기도 하였다. 정말 비정상적인 날씨에 다시 당황하며 즐기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장소에 방문하여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던 장소였다.

세번째 코스로, 호안끼엠 호수 주변을 관광하였다. 사실 이때 처음으로 본격적인 베트남 여행을 시작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였다. 나뭇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정말 티비에서만 보던 베트남의 시내와 그 특유의 매연냄새, 시끄럽지만 그 속에 질서가 있는 베트남의 거리를 두 눈에 생생히 담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해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던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여행 1일차였다.

그리고 유난히 강아지가 많았지만, 이상하게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았었다. 과일이 너무 싸서 당황하기도 하였고, 숙소가 생각보다 작지만 있을건 다있으며 에어컨이 무척 시원해서 더욱더 신기했다.

[2일차]

하노이 KOTRA 방문 & 롯데몰 구경 및 기념품 구매 삼매경

두번째 날 처음으로는 하노이 KOTRA를 방문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있고, 베트남을 포함해 아세안과 한국간의 관계가 이제는 무시할수없는 수준으로, 원원의 관계로 나아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현지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되었다. 더불어 나의 진로와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성장하게 되었던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롯데몰을 갔다. 우리를 맞이해주는 친절하신 사장님과 함께 롯데몰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진출에 대하여 들으면서 롯데몰을 구경하였는데, 기억에남는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와 귀여운 가오리를 볼 수 있었던 아쿠아리움, 그리고 가져갔던 돈의 80프로를 써버리게 만들었던 롯데마트였다.

베트남 문화체험을 하며 베트남에 대해 진심으로 체험하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캐리어에 기념품만을 담아 가겠다는 마음을 실현할 수 있었던 장소였다. 잭푸르트나 패션후르츠같은 국내에서 쉽게 먹어볼 수 없는 과일을 포함해 베트남의 대표 특산품인 커피를 주로 샀던 것 같다. 이제와서 보니 과일을 잔뜩 사가는게 좋았던 것 같지만,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내가 사온 기념품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과 나를 보니 주어진 1시간30분안에 열심히 쇼핑카트에 물건을 밀어넣었던 나의 모습이 조금은 대견해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밤에는 룸메이트였던 형과 함께 야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는데, 길거리 음식이다보니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어서 결국 사놓고도 먹지 못했었다.

[3일차]

하노이 기차길 마을 & 그랜드월드 방문 & 호안끼엠 호수 방문 & 2번째 기념품 구매 삼매경

3일차로는 5조 팀원 누나들과 함께 자유여행을 갔다. 하노이 기차길 마을을 가기 전 연유커피를 먹어보았는데, 내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맛있지는 않았다. 커피 특유의 쓴맛이 싫었기 때문이다. 사실 첫맛이 너무 달아서 이래서 특산품이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알고보니 내가 커피를 안저어서 연유만 먹은거였다.

하노이 기차길 마을에서 우연히 2조 분들을 만난 뒤 함께 기차가 지나가는걸 보고 헤어졌다. 추가적인 말을 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사람들이 물밀듯이 섞이며 부랴부랴 그랩을 이용해 택시를 타고 그랜드월드 하노이에 갔다. 하노이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며 실제로 베네치아에 온것처럼 건물이 지어졌었기 때문에 또다른 이국적인 감정을 느껴 신기했으나, 너무나 습했고 배고팠기 때문에 눈에보이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던 것 같다.

이후 사진을 30분간 찍고 다같이 호안끼엠 호수로 갔다. 인력거를 탔는데, 처음에 100만동을 부르길래 거절하더니 결국에 10만동 정도로 깎고 돌아왔다. 이후 커피집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기념품을 구매하는데 하루를 다 써버렸다.

호텔에 돌아와 씻고 1층에 내려와 새우볶음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만약 또 베트남에 가게된다면 그 볶음밥을 다시 먹고싶다. 내가사는 고향인 제주도 횃집에서 나오는 볶음밥맛과 매우 유사했었기 때문이다.

[4일차]

짱안 방문 후 나룻배 체험 & 바이딘 사원 관광 & 항무아 동굴 투어 & 센 뷔페 레스토랑 방문

4일차에는 미니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짱안에 방문하여 나룻배를 탔다. 배에 타서 절경을 보는것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뒤에있는 아주머니가 힘들어하시는것을 보고 같이 노를 저어주고 호수물로 세수(?)를 하다보니 땀에 젖었던 것 같다. 그래도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었다.

이후 바이딘 사원을 갔다. 정문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것에 첫 번째로 놀랐지만, 당황스러운 날씨와 오르막길에 두 번째로 놀라며 3분의2정도 갔을 때 내려오고 말았다. 하지만 거기서 파는 콜라와 에어컨 바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말 시원한 순간이었다.

이후 항무아 동굴을 탐방하고, 센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해산물요리와 과일을 중심으로 5점시는 먹은 것 같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가이드 아저씨와 작별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타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갔다.

짧다면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기억보다 길게남을,, 진심으로 소중한 여행이었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하계 해외문화체험이었던 베트남은 나에게 있어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그동안 교과서로만, 핸드폰으로만 바라보았던 타국의 기후 및 문화, 의식주등과 같은 모든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실 문화체험 이전에 베트남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KOTRA 및 여러 현지장소를 둘러보며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활기가 넘치는 국가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하여 베트남을 비롯해 다른 동남아국가, 나아가서 ASEAN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있는 참여였다고 확신한다.

이번 활동을 이후로하여, 앞으로의 학교생활 및 살아가는데 있어서 베트남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조사해보거나 다른나라의 내부적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학과(정치외교학과)와 진로(국제기구분야 구상中)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하여 한 나라의 일관된 외교정책은 비단 정치적 변수 뿐만이 아닌, 수백년 혹은 수천년간 이어져온 그 나라만의 특이한 주변상황과(ex:베트남은 수세기동안 전쟁을 겪어온, 승부욕이 많은 민족이다.) 문화 (ex: 베트남은 유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등에 계기한 외교정책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영국의 이러한 외교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변수에 대해 주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향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프로그램 주관 기관에게 몇가지 바라는 점을 분석해보자면, 베트남의 여름 날씨를 고려하여 유동적인 장소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4일차 항무아 동굴 및 바이딘 사원 산 오르기 부분이 베트남의 날씨 및 습도를 고려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최고다.

대학교에와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 만으로도 어느정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공고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기를 응원한다!!